

<예술이 유용한 순간>
- 최은진 안무작<유용무용론> 리뷰 -

I

2014년 11월, 예술가들의 fee(사례비)에 대한 논의와, 예술의 객관적인 가치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국제심포지엄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최고은법'의 시행으로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일부 실현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한 논의였다. 그러나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자생 가능한 구조를 모색하기에 앞서 요구되는 과정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예술은 종종 쓸데 없는(무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됐을 때에도 온라인상에 많은 이견과 반발이 표출되었는데, 대부분 '자기 좋은 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하냐'라는 논리에 근거한 감정적 반응들이었다.

시작부터 일부(이지만 일부가 아닐 수 있는) 시민들의 반발을 산 '예술인 복지법' 외에도 예술가들에게 가능한 자본의 출처는 주로 국공립 예술재단이나 사적인 기금, 그리고 FF(Family Fund)가 있다. 이 모두는 사실 '남의 돈'이 예술이라는 가치재 혹은 공공재에 맹목적으로 투자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 맹목적인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예술의 가치는 의심받고, 투자자는 예술보다 돈을 아쉬워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주된 현상은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예술의 가치를 설득 하는 데에 있어 '경제가치'¹나 '사회적 유용성'²이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아티스트 fee를 지급하는 당위를 예술가의 노동력에서 찾았다. 예술작품의 생산 행위가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에 대한 모색이 그 자리에 논의되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서울시립미술관과 다른 미술기관에서 아티스트 fee 지급에 대해 검토 중이다.

II

안무가 최은진 역시 무용(dance)의 유용성에 대한 고민을 '노동'과 연결 지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알바 시간)이 자신의 가슴 뛰는 창작 시간을 넘어설 때, 무엇이 주객인지 헷갈리거나 지칠 때 문득 드는 의문. 최은진의 작품 <유용무용론>은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공연의 시작에서부터 위성희가 무대를 가득 채운 의자를 무대 밖으로 나르는 동안 윤상은 안무적인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유용한 행위와 무용한 동작은 대비를 이뤘다. 의자가 모두 치워지고 나서야 등장한 최은진은 무대에 하얀 마대를 깔고 테이프로 고정하는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해 관객에게 토론했다. 그리고 마대가 깔린 무대에 세 무용수는

¹ 커뮤니티아트 는 종종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이 평균적으로 교환 가능한 역할을 찾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착하는 듯하다.

² <국제시장>을 관람한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로 세대 간 소통을 이뤘다면서 좋은 문화 콘텐츠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했고 한편, 생활평론가 홍태림은 그의 웹진 '크리티칼'에 쌍용노조운동 앞에서 무력한 예술에 대한 글을 기고한다.

고무나무의 분갈이를 시작하는데, 행위의 유용한 결과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무용의 동작으로 나타났다. 위성희는 몽롱한 눈빛과 느슨한 리듬이 있는 몸짓으로 스티로폼을 부숴 화분에 넣는데, 이는 마치 동양의 전통무용을 구사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윤상은과 최은진은 이전 작품 <신체하는 안무>에서와 같은 방법론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분절시키는 듯한 움직임으로 구사했다. 분갈이가 끝나고 무용수들이 빠져나간 무대에는 고무나무 한 그루와 분갈이의 흔적만이 남고, 영화 <시네도키뉴옥>의 삽입곡인 'Little Person'이 흘러나오며 무대는 암전되었다. 그런데 암전이 끝나고 무대와 객석에 다시 조명이 켜지는 순간 나는 내 자리의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관객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공연을 함께 관람한 관객으로서 나 역시 그 눈물에 동의할 수 있었다. 공연의 마지막이자 클라이막스의 구성을 다시 되짚어보면, 웅한 무대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고무나무 한 그루와 바닥에 흩어진 흙과 스티로폼 조각들. 공연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과장된 몸짓들의 흔적이 포착되는 가운데 "I'm just a little person. A person in a sea of many little people who are not aware of me...." 라는 가사의 잘 작곡된 노래가 들려왔다. 이와 같이 전체 공연 시간의 흐름이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시청각적 조합과 '나는 그저 작은 사람'이라는 가사는 순간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 세계 어느 위치에 있는 작은 방점인지 물음을 갖게 하고, 동시에 온 몸으로 무한함과 유한함을 절감하게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짐작하는 그 눈물의 원인은 감각적으로 전해오는 대상에 의해 관객이 갖는 '인간의 위치 확인'과 그에 따른 '멜랑콜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작용에 의한 신체적 반응, 즉 흘린 눈물은 바로 그 관객에게 있어 예술이 진정으로 유용했던 순간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III

"개인적 방법으로 개인적 재능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사회전체에 공헌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경의"

이 MOMA 후원자들의 표현은 '개인성', '개인주의',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근대미술관의 성격을 잘 설명하는 문구이다.³ 그러나 나는 이 문구에서 밝히는 작가 개인적 방법과 재능을 모더니즘의 '독창성의 신화'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나는 이 문구가 오늘날에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작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받는 당위와 제약들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바로 서는 위치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예술이 비로소 유용한 예술,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예술의 경제가치나 사회적 유용성이 예술의 또 다른 유용함을 대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예술이 진정으로 유용한 지점을 '개인적 방법으로 개인적 재능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모색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전체에 공헌하게 되는 바를 주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가 어떤 작가에게는 커뮤니티아트의 진영일 수도 있고 화이트 큐브, 혹은 대중매체의 진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³ 윤난지, "성전과 백화점 사이 :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미술관", 『미술사학보』 제17집, 2002 pp.149-183.

진영에서 예술이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감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 가능한, 예술이 유용한 순간이 발생하리라 믿는다.